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0 | 2018년 5월호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울산 대현중 ‘역사 속의 사회-문화 탐구’

그림 그리고 토론하다보면 어려운 역사 개념도 머리에 ‘쏙’



거중기 문화재 팝업북을 만드는 대현중 학생. 대현중 제공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은 왜 모두 조선시대 사람일까?” “간송 전형필이 전 재산을 문화재 구매에 사용한 이유는 뭘까?”

울산 대현중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역사 속의 사회-문화 탐구’ 수업의 토론 주제다. 이 수업을 기획한 대현중 김보영 역사 교사는 역사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역사 수업에 탐구활동을 접목했다. 학생들은 1차시에 △영화 △예능 △해외 여행사진 △예

술작품 △지폐 등 다채로운 영상 및 사진 자료를 보며 역사를 학습하고, 2차시에는 앞서 배운 역사 수업을 주제로 토론 및 토의, 그림 그리기 등의 탐구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총 18차시로 진행된 이 수업은 △풍속화를 통해 알아보는 조선후기의 사회상(2차시) △화폐 속 문화유산(2차시) △일본군 위안부(2차시) △도전! 로마숫자(2차시) △설민석의 무도특강(2차시) △독도와 영토분쟁(2차시) △우리가 몰랐던 국보이야기(2차시) △의열단과 한인에국단(2차시) △내 손으로 만드는 문화재(2차시)의 순서로 진행됐다.

역사 탐구활동으로 ‘과거’와 ‘오늘날’의 연결고리 찾는다

1·2차시는 조선후기 미술작품을 살펴봄에 당대의 사회상을 탐구하는 시간. 학생들은 서민의 소박한 삶을 익살스럽게 그린 김홍도의 작품과 양반들의 풍류,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신윤복의 그림을 관찰하며,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산수화 중심의 조선전기 그림과 달리 조선후기 그림에는 서민이 주로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서민의 성장을 파악하게 된다.

김 교사는 “신윤복의 그림이 소장된 간송 미술관을 설명하며 간송 전형필의 다큐멘터리도 시청했다. 학생들은 간송 선생이 일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구매한 덕에 신윤복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3·4차시에는 우리나라 화폐에 실린 이이, 이항, 신사임당 등의 업적을 살펴본다. 학생들은 특정 위인을 화폐 도안의 주인공으로 삼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당 인물의 업적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게 된다. 이후 각자 새로운 위인을 추천해 화폐 도안을 그리고, 추천 이유를 적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5·6차시에 학생들은 영화 ‘귀향’과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중학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자료를 살펴본 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7·8차시에는 로마숫자 읽는 방법을 배운 뒤에 로마숫자가 새겨진 유럽 건축물 사진을 보며 과거 대제국을 이뤘던 로마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본다. 김 교사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학생은 자신이 유럽 여행에서 무심코 지나친 글자가 로마숫자였으며, 이것이 건물이 세워진 년도, 위인이 죽은 년도 등을 의미함을 깨닫고 세계사 학습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애정을 휴대전화 잠금화면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 작품. 대현중 제공

국보 지정하고, 손수 문화재 만들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9·10차시, 학생들은 한국사 통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 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이들이 민족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을 통해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사람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역사 강의를 듣거나,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역사서를 볼 때에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11·12차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고문헌·고지도를 살펴보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고, 타이포그래피와 독도의 모습을 담은 휴대전화 잠금 화면 그리기 활동을 하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13·14차시에는 국보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듣는 시간. 교사는 국보 1호 송례문의 현판 글자가 세로로 쓰인 이유, 창경궁(국보 226호)이 일제에 의해 동물원으로 이용됐던 사실, 국보 1·2·3호의 숫자는 중요도가 아닌 지정 순서로 결정된 것임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화재로 소실된 송례문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을 배우고, ‘복원된 송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송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상징성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댐 건설로 수몰된 국보 285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국보 1호로 지정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으며 토론을 통해 국보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15·16차시에는 영화 ‘암살’을 시청한 뒤 한민애국단과 김원봉, 김구, 남자현의 생애를 학습한다. 또한 영화 속 가상인물의 뇌 구조를 그린 뒤 간단한 역할극을 해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배경, 주요 역사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했다.

17·18차시에는 문화재 팝업북(그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책)을 제작했다. 학생들은 △혼천의 △양부일구 △측우기 △팔만대장경 △석굴암 등 친구들이 제작한 문화재 팝업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의 존재를 알고, 관련 정보를 탐구했다.

김 교사는 “국보 1호는 알지만 국보 2, 3호는 모르던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보를 알게 되었다”며 “이 수업은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 주제를 다채롭게 변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1, 2차 세계대전에 높은 관심을 보인 학생들을 위해 다음 수업에서는 세계사 파트를 늘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여본다.

김보영 울산 대현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역사를 탐구하는 수업”

‘역사 속의 사회-문화 탐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나라 위인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화폐 도안을 그려보고, 유럽 건축물에 새겨진 로마숫자를 읽어보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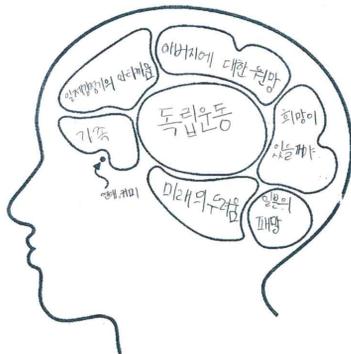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보영 울산 대현중 역사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왕조, 위인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서술한 역사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했으나, 이 수업에서는 서민·여성·문화재·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뒷이야기 등을 탐구하며 역사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역사 속의 사회-문화 탐구’ 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암살”의 주인공

안옥환

의 뇌 구조 들여다보기



영화 '암살' 시청 후 등장인물의 생각을 뇌 구조 모양으로 정리한 학생의 활동지. 대현중 제공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역사는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수업을 기획했다. 또한 2학년 때 배울 역사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싶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한 차례 한국사를 배운 상태였다. 그래서 시대 순으로 왕조의 업적과 흥망성사를 배우는 일반적인 역사 수업의 형식을 탈피해 △서민 △여성 △ 문화재 △역사의 뒷이야기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 등을 주로 다루는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시대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민들의 저력, 동서양 을 넘나드는 역사 속을 탐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제 선정이 가장 어려웠다.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주면서 2시간 분량의 수업을 채울 수 있는 주제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만 1~4차시에 그림과 화폐를 수업 도구로 활용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풍속화를 보여주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선 후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고, 학생들은 화폐를 살펴보며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었나?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그렸을까?’라는 의문을 떠올리며 재미를 느낀다. 이를 통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적었던 학생들도 초반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

주제를 선택한 뒤에는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은 학교에 배포된 교재를 활용했으나 그 외에는 교사가 직접 PPT, 활동지, 참고 영상 등을 준비했다. 교사 스스로 많은 책을 읽고, 역사 다큐멘터리나 EBS 역사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미리 확인해야 했다. 자료가 부족했다기보다 너무 많은 자료 속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역사 속의 사회-문화 탐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탐구활동 결과물 모음. 대현중 제공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은 어렵고 따분하게만 여겼던 과거의 이야기를 책에서, 영화에서, 여행지의 길 위에서 읽고, 듣고, 보고, 느끼게 되면서 역사를 매우 가까이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중의 다양한 역사책을 읽거나, 사극을 보며 복장이나 가옥, 배경을 눈여겨보는 학생도 생겼다. 즉,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유연해진 것. 또한 간송 전형필, 남동순 열사, 안용복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결과를 알게 돼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보영 울산 대현중 역사 교사

“학생들의 생각 끄집어내는 수업 돼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학생들이 1차시의 역사 수업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 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동영상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 짧게 끊어 보여줬다. 교사의 수업도 가능한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2차시에는 토론과 발표,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등의 탐구활동에 시간을 할애해 흥미를 유도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자유학기제 성과 전시회’를 실시한다. 수업에 앞서 학생들에게 매시간 만든 저작물을 모아 추후 전시회에 공개할 것임을 미리 안내해 학생들이 열의를 갖고 탐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학생들의 부족한 역사지식을 보완하려면?

이 수업은 많은 역사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1차시 교사의 강의는 필수다. 단, 강의는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 소지와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찬스를 허용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수업이 되지 않는다. 토의·토론 및 그리기 활동에 필요한 문화재, 인물, 책, 고지도의 이름은 교실 앞 스크린에 PPT로 띄워두고 참고하도록 했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데에 2시간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 시간 활동지에 추가 질문이나 스스로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적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부족한 역사 지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제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업활동은 개인 활동으로 진행했다. 만들기와 그리기 활동에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했으며, 토론도 개별 희망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또 다른 희망자가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학생이 이 수업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대단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역사는 머나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도 역사 속 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역사 속에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고, 오늘 속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